

태조어진 봉안의례 전주에서 재현

시, 14일 오후 2시 노송광장~팔달로~경기전 일원서 태조어진 봉안행렬 진행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임금의 초상화)을 전주 경기전에 봉안하는 의례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재현된다.

전주시가 오는 14일 시청 앞 노송광장과 팔달로 경기전 등 전주 일원에서 태조어진과 경기전 등 조선왕조의 대표적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확충을 위한 '태조어진 봉안의례 재현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1688년(숙종 14년)에 서울 영희전의 태조어진을 새로 모셔하기 위해 경기전의 태조어진을 서울로 모셔갔다가 다시 전주 경기전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고증을 통해 진행하는 행사로, 진발의식과 태조어진 봉안행렬, 봉안고유제로 구성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시청 앞 노송광장을 주정소(書亭所, 왕이 행차 중에 멈추어 쉬는 곳)로 정하고,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의식(進發儀式, 출발을 알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봉안장소인 경기전으로 봉안행렬이 이어질 예정이다.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선두는 어진을 호위하는 전라감사가 이끌며, 그 뒤를 전사대(侍衛)와 신어(神輿), 향정자(香亭子), 전부고취, 신연(神輦), 후부고취, 종사, 사관, 도제조, 후사대 등이 서게 된다.

노송광장에서 출발한 행렬은 풍남문 사거리로 도착하면 약 10분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행렬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이 진행되며,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노송광장에서 충경로사거리, 풍남문사거리 등 팔달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봉안행렬이 경기전 정문을 통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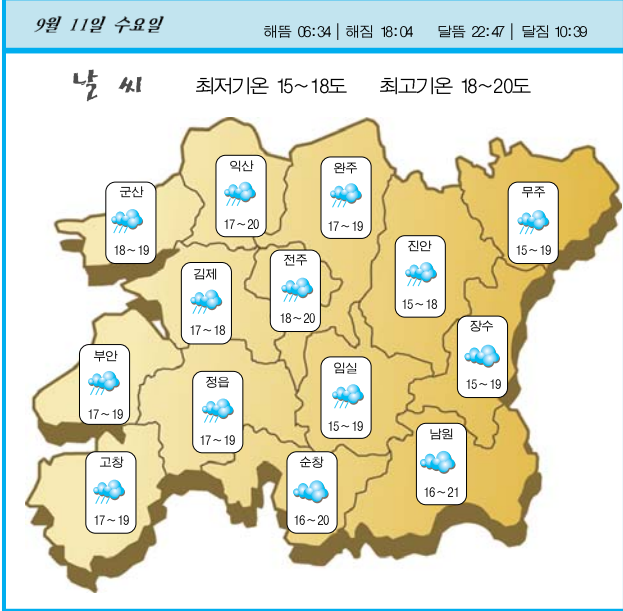


서해례회 참사 24주기 위령제 10일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령탑에서 열린 '제24주기 서해례회 참사 위령제'에서 이영상 부군수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강연소에 도착하면 의장이 도열한 가운데 신연(神輦)에 모셔진 어진계를 신어(神輿)로 옮긴다. 이후 외신문과 내신문을 통과하여 경기전 정전에 도착하면 신어에서 어진계를 꺼내 정전에 모신다. 어진이 경기전 정전에 모셔지면 경기전제례 보존회(대표 이준기) 주관으로 태조어진 봉안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태조어진 봉안을 잘 마쳤음을 알리는 제례가 진행되고, 고유제가 끝나면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 시는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품

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증을 통해 행렬 구성원의 복식·의장 등을 단계적으로 구입해서 구비할 계획이며, 태조어진 봉안행렬의 참여인원 또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관광객과 함께하는 행사를 위해 SNS 등 홍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모집해 행렬에 참여시키고, 행사 당일 오전에 한옥마을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퍼포먼스, 포토타임, SNS 포스팅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시는 향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봉안의례를 재현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축제형·시민참여형 행

사로 만들 계획이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전주의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게 태조어진 봉안의례의 완성도와 품격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태조어진 봉안행렬로 인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팔달로 및 충경로 일원의 교통이 통제된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은 오거리광장에서 충경로사거리가 전면 통제되며, 30분 동안은 충경로사거리에서 풍남문사거리가 일시적으로 통제된다. /김민근 기자



교육부, 스마트폰앱 15개 폐기

김병욱 의원, "앱 낭비 방지 대책 필요" 지적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이 국가예산으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한 후 별다른 홍보나 업데이트 없이 방치하면서 약 6000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15개 앱을 폐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올해 9월까지 국가예산을 투입해 운영해온 스마트폰 앱은 총 35개로 제작비로 총 44억1800만원을 지출했다. 앱당 평균 1억2600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이다. 이렇듯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놓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

억6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스마트폰 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별다른 홍보나 업데이트 없이 앱을 방치하다보니 앱 설치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앱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스마트폰 앱 예산 낭비를 지적했음에도 스마트폰 앱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정보화 담당 부서는 실태 파악을 거쳐 주기적으로 앱 활용도를 평가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앱 낭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2018학년도 전국 초등임용 경쟁률 1.62대1

전년비 소폭 ↑ ... 광주지역 경쟁률 최고 8.6대1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난해(1.30대 1)보다 소폭 상승한 1.62대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초등 임용시험에서 농산어촌이 몰려 있는 '도지역 기피현상'으로 모집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했던 강원·경북·충남·충북·전남 등 5개 교육청은 경쟁률이 1대1을 약간 웃돌았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도 시·도교육청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

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4088명 모집에 총 6610명이 지원해 1.62대를 기록했다. 이는 6022명 모집에 총 7807명이 지원했던 지난해(1.30대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시도별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을 보면 최근 3년간 미달을 기록했던 강원·경북·충남·충북·전남 등 5개 교육청은 올해 경쟁률이 1대1을 웃돌면서 미달 사태에서 벗어났다.

경북(365명 모집에 398명 지원)과 충북(280명 모집에 305명 지원)은 모두 1.09대를 기록했다. 충남은 500명 모집에 533명이 지원해 1.07대를, 전남은 414명 모집에 433명이 지원해 1.05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319명 모집에 326명이 지원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1.02대를 기록, 가까스로 미달을 면했다. 5개도가 미달 사태에서 벗어난 것은 교육당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축소하면서 해당 지역교대 출신자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

5개도는 농산어촌이 집중된 도단위 기피 현상이다. 지난해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시단위로 지원이 몰리면서 미달사태를 겪어왔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시단위였다. 전국 8개 시도 중 광주(8.6대1), 세종(3.4대1), 대전(3.08대1), 서울(2.78대1), 대구(2.58대1), 부산(2.3대1), 인천(2.04대1) 등 7개 지역이 1~7위를 휩쓸었다. 특히 17개 시도 중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로 나타났다. 광주는 5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찍었다. /뉴스

전주시, 자전거 교통순찰대 2기 운영

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지도·단속으로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대 상습·고질적으로 성행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교통혼잡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에 우선 배치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자전거를 이용해 평일 퇴근시간 무렵(오후 5시)부터 야간시간(오후 10시)까지, 주말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에 교통지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된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범위를 한옥마을과 전주객사거리·2길(객리대길)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으로 점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4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